

세입자파업?

Crimethinc

Crimethinc
세입자파업?
2020.3.30

<https://ko.crimethinc.com/2020/03/30/seibja-paeob>에게시
Crimethinc 에한국어역자 Montagna 가게시한것을게제함.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3.30

차례

세입자파업?	4
지금이 세입자 파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인가?	7
세입자 파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9
역사 속의 파업과 그 속의 공통점들	11
아일랜드, 러스커몬 카운티, 디프레인 영지, 1901 년	13
1907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로사리오의 브룸스 파업	15
1907 년 맨해튼 세입자 파업	17
바부르 부인의 군대, 1915 년 글래스고	19
1931 년 바르셀로나 경제 보호 위원회 (Comité de Defensa Económica)	22
1959-60 년,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25

1970년대 이탈리아 자체인하 (Autoriduzione) 운동	28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 흑인 거주구	31
2017년 로스 앤젤레스 보일 하이츠 마리아치	34
2018년 로스 앤젤레스, 단결된 벌링턴	36
2017-8년 토론토 파크데일	38
공통적인 특성	40
현재 상황: 적기 (適期) 이상이다	42
세입자들의 우려	45
실제적, 법적 우려	47
정서적인 우려	49
주거권 투쟁에 특화된 조직들	51
몇몇 결론들	55

세입자파업?

자본주의는세계적이다. 국가들은세계적인레벨에서서로를지탱한다. 어느 한곳에서의혁명은적어도장기적으로는불가능하다. 판데믹, 제노포비아, 국경, 초국가기업의이시대에는국제주의적인시각이필수적이다. 스페인에서는최근 국제주의가상당히약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무료대중교통을위한파업과봉기가, 우익쿠데타가, 수개월의투쟁과수많은죽음이있었다. 하지만스페인에서는힐끔쳐다보지도않았다. 홍콩에서는거의통째로 1 년동안새로운권위주의적조지에반대하는시위가있었다. 스페인에서는침묵만이있었다. 2019 년내내, 피레네산맥의바로반대편에는공급에맞서노란조끼가모든걸내던지며싸웠다. 스페인에서는얼마나많은연대의대오가있었는가?

착취에맞서고자유와인간존엄성을향한운동은세계적이되어야만한다. 지금당장우린세계적판데믹을겪고있다. 그리고미국부터중국에이르기까지강대국들은무관심과치명적인무능이나전체주의적감시(드론, 실시간개인위치감시, 모든공공장소안면인식 CCTV 설치) 로대응하고있다. 스페인에서는무능과경찰권위주의의합일을보고있다.

세입자파업은수많은사람들이집을잃을위기에처한여러신자유주의국가들 사이에서이미퍼져나가고있다. 이상황에여기스페인에도닥쳤다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지금우리의투쟁을국제화시키지못한다면, 영원히못하는것아닐까?

연대와인간존엄성을위해, 불안정에맞서서.

지금당장세입자파업 #RentStrikeNow #HuelgadeAlquileresYa

“그누구도우리의고혈을빨아먹고우리가살권리를부정하며우리를 짓밟으며살아가지못해야한다.”

-* 비르히니아볼텐 (Virginia Bolten)

코로나가몇달째지속되며, 이태원과홍대재감염으로인해다시금언제쯤마스크를벗을수있을지불투명한현재, 한국에서는수많은사람들이고용불안을겪고있거나이미일 자리를잃었다. K-방역등으로자화자찬하지만, 한국이코로나가불러온경제적위기가사람들의삶을파괴하는것을막기위해한조치는극히미미하다. 재난지원금제도에도실질적으로도움이절실한 1 인가구들은포함되지않고있다. 이런특히월셋집에서는경우가대다수인 1 인가구들, 또일용직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코로나가불러온경제위기의가장큰피해자들이다. 이들의가장큰고민은바로월세를내지못해집에서쫓겨나는것이다.

그러나이런상황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유난히미온적이다. 또그나마내놓은대책들또한온갖담합으로천정부지로솟은임대료를제한하는것이아닌그저그임대료를낼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유난히한국정부는임대인들의권리를보장하는데온갖신경을쓴다. “착한건물주”운동이라임대료를조금만깎아줘도선인으로추앙하고, 그임대료가정당한액수였는지, 어쩌서세입자도잘들어오기어려운요즘따박따박임대료를받아야만하는지에대한문제의식은없다. 또임대료체납자들에게대한강제퇴거조치는방역체제임에도불구하고수십명의경찰들이잘만물려가서해낸다. 어쩐지정부는건물주의대리인같다.

하루하루쌓여가는수많은세입자들의걱정과불안. 이는코로나가불어닥친세계의다른나라들에서도별반다를바없다. 이에맞서서서구국가들에서는지난 3 월부터“Rent Strike”, 세입자파업운동이돌고있다. 이운동의주요골자는세입자들자신이이런상황을타개하고모든경제적책임을가장약한자들이지니이구조에근본적질문과타격을주는것이다. 이기사는북미아나키스트출판조직인Crimethinc 에서카탈루냐세가도레스출판과바우마콜렉티브가세입자파업의역사적사례들, 이들의공통점, 그리고현재의분석과세입자파업에필요한전략에대해쓴글을발췌번역한것이다. 아무쪼록한국에도여기에대한질문이활성화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역자 Montagna.

역사의, 그리고 오늘의 세입자 파업에 대한 전략적 평가

세계곳곳에서코로나 19 로인해발생한경제적어려움에대한대응으로세입자파업에대한호소가늘어나고있다. 지난 10 년간, 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 수많은지역사회가젠트리피케이션으로인해파괴되었다. 주거비용은코로나가더문제를심각하게만들기훨씬오래전부터지속불가능했다.

그러나어떻게경제전체에대응하는세입자파업을할수있겠는가? 세입자파업이라고생각하면주로떠오르는것은특정건물주에대항하여일정한요구사항을제시하는모델이다. 하지만아래에서도볼수있듯이실제론이전에도세입자파업은훨씬더폭넓은범위에서효과적으로쓰였다. 수많은사람들이원하든원치않든간에집세를낼수없는위기상황에서는집세를낼수없는 **모두**를지킬수있는네트워크를조직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이다. 향후몇달간, 우리는세입자에게불이익을주거나되거시키려는모든건물주들과맞서싸울능력을길러야만할것이다.

이아래의글은카탈루냐에서 Editorial Segadores 와 Bauma 콜렉티브가 이번주초에쓴스페인어원문에서발췌한것이다. 이들은 1 세기가넘는기간동안의세계각지의세입자파업을성공혹은실패요인이무엇이었는지알아내고, 지금코로나위기가전세계적세입자파업을위한절호의시기인지평가해보기위해살펴보았다.

몇몇 결론들

개량/혁명 이분법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혁명을완수하고모든억압구조를 부수는것이가능하다고믿는것은환상이다. 혁명은기나긴투쟁의연속으로이루어져있다. 국가권력을위협하는세력을만들지않고실질적인개선을이룰수있다고믿는것도한오류이다. 국가는사회적통제와경제의변영을유지하려고하고여기에불필요한것들은보호치않는다. 거의모든제대로된혜택을주는개혁들은개량운동이아니라혁명운동에의해정취되었다.

국가와정치운동간의적절한관계와전술, 전략에대해서많은중요한논쟁이오가고있다. 그러나우리는함께할때더강하다. 작지만급박한목표에헌신하는이들이착취의근본적원인에맞서고착취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지평선을바라보는이들과연결될때말이다. 끝에는, 우리의투쟁은한생태계를구성한다. 우리세계의모든사람들이우리처럼생각하도록설득하거나, 모든운동을지배할수없다 (누구라도이를시도하는사람은해당운동을약화시킬뿐이다). 우리는같은투쟁의다른부분들사이에서연대하기만한건강한관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가능할때면 [서로의정보와힘을] 공유하고, 가능하지않을때는평행선위에서각자의길을걷는것을인정하면서, 이런연대가가능하기위해서는일부가집중하는즉각적인과업을존중하고, 어떤그룹의언론, 혹은경찰에대한“급진주의 (좌경맹동주의)”를비난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자신의소득의반을임대료로쓰는사람은임대료상한법을쉽게환영할것이다. 사보험을부담할수없는사람은공공의료서비스를환영할것이다. 점거된아파트에서사는사람은강제퇴거중지를환영할것이다. 이민자는강제추방으로부터의법적보호를환영할것이다. 개인적으로이런상황중아무것도겪지않는사람들은정치적이념을확고히하기이전에이를겪는이들과공감해야할것이다.

동시에, 불안정함을겪는우리중많은이들은거기이기반한정체성을만들지않으려고한다. 우리는문제의근본원인을보아야한다. 공공의료서비스와임대료제한은좋지만법개정과“공공”선은우리가마음대로할수없다. 국가가그통제권을쥐고있고국가가우리에게준것을유지하는게편리하지않다고결정하면결코좋은것이못된다. 어째서코로나가이렇게심각한위기를불러왔을까? 국가가지속적으로공공의료서비스의질을깎아먹었기때문이다. 어째서임대료가이렇게많이올랐을까? 국가가이전세대가정취한보호를찢어버리고도시주거임대법을통과시켰기때문이다.

단기적조치는필요하다. 그러나혁명적인시각도필요하다. 적어도자신의전인생을뺄부스러기를쟁취하기위해싸우며살고싶지않은이들에게라도, 단순히생존을위해서라도.

지금 이 세입자 파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인가?

“기존조직이나운동에대한아무런경험이없는데 *# 세입자파업에 갑자기관심을가지는꽤많은사람들이있다는건자발적조직이나극좌이념, 혹은기존조직에서나타난어떤류의도덕적실패를나타내는 것이아니다. 이는주어진물질적조건이ㄱ. 생존과ㄴ. 새로이증가한 교섭력을합친전략으로서세입자파업을들여다보게만들었다는사실을나타내는것이다. 새로운조건은우뚝서서기존의것을고집하는 것이아니라새로운조직방법을의미한다.”

-* 조슈아클로버

“근데한번에애널다쫓아낼수는없어!”*

-“자신의”* 건물의 32 명의세입자각각에게서세입자파업선언을 받고서온라인커뮤니티에서조언을구하는한건물주. 2020 년 3 월 25 일, 텍사스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한주거협동조합 **Station 40** 의사진이다. 우리가이 기사를 올릴때이미이들은세입자파업에돌입했다.

참으로이상한시대다. 봄은바이러스하나가일으킨판데믹상황과함께왔다. 이바이러스는무서운속도로전파되어국가의전체주의적대응을불러와우릴새로운상황속에위치시켰다.

경찰이새로이얻은권력을즐기는동안, 많은이들은직업을잃었고더많은이들은어떻게당장이번달을살아가야할지막막하다. 이런상황속에서불복종의목소리가서서히떠오르고세입자파업이라는아이디어가관심을끌게됐다. 우리, 세가도레스출판과바우마컬렉티브는이세입자파업에대해서이전의유명한사례들을살펴보고코로나시대의세입자파업이어떤모습일지상상하며조사해보기로했다. 우린이고찰이전략을짜고행동하려는모든사람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 격리에대한대응은비판적사고와직접행동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럼이와는반대로, 사회조직들과주거권운동간역효과를내는관계의특성은무엇일까?

활동가 활동주의. 인간존엄성과자유를위한현대투쟁에서사람들이자신들의 삶을헌신하는것은존경할만하다. 그러나이런헌신이전문가와“일반인”간의거리를만들어내는접근에서온다면문제가된다. 주거권투쟁의경우, 활동가들은다른“조직된”활동가들과조직원들의시각을다른거주민들과불안정한사람들에게일어나는일보다더잘알게되어버릴수도있다. 따라서이들은언제나우선해야 할거주민들의이해관계 (괜찮고안정적인집에서살수있는것) 보다조직의이해관계 (더많은사람들이있고, 언론에긋발있어보이고, 당국과의협상을통해지위를 얻는것) 를우선하게된다. 이활동가들과주민들사이의소외는쓸데없는신중함을 낳을수있다. 세입자파업이매우힘든싸움이라는건사실이다. 가볍게제안할만한 것이아니다. 하지만현재상황에서보수적인입장을지니는것은많은이들이이미 겪고있는현실을부정하는것으로보인다. 세입자파업은위험하다. 하지만현재위기에서는위험이이미와있다는것이부정불가능하다. 이번달 (3 월) 에만해도수만명이집세를내지못할것이다. 완전한불안속에서거리위에서살아가는수만명의사람들을차치하고서라도말이다.

활동가활동주의의위험성은경제적특권층의경우더욱두드러진다. 유복한 가정출신의사람들이불안정한사람들곁에서싸우겠다고결정하는것은존경할만하다. 그러나그런사람들이불안정한이들의우선순위나투쟁의속도를결정하는것은절대로용납할수없는것이다. 특권의모든경우에서그렇듯이, 이들은동지들에게투명하고자신들에게정직하며불안정한이들의투쟁을이끌려고하는대신에 도와야한다.

제한된 규모 혹은 파편화된 시각. 주거권투쟁을오랫동안해온이들이세입자파업에대한대대적인호소에관해서어쩔줄몰라하거나의심을가지는것은완전히 이해할만하다. 이사람들이그렇게느끼지않았다면뭔가문제가있는것일테다. 이정도규모의세입자파업을목도한지거의 1 세기가되었다. 그러나우리자본주의가지금만들어지고것과같이커다란위기를겪은지또한 1 세기가되었다는것을, 또세입자파업이계속해서효과적인무기였음을인식해야한다. 지난 3 년간토론토와로스앤젤레스에서세입자파업에참여한세입자들과조직들이현재국제적호소를지지하고있다는사실을알면조금은위안이될것이다.

투쟁분열의위험성에관해선, 우리는집없는이들과미등록인들의필요를고려하지않는그어떤호소도완전히용납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 많이조직들이좀더구체적인분야나주제의단기적변화를목표로하는것은이해할수있어도, 이것이연대의가능성을깎아먹으며투쟁의파편화로이어져서는안될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집을가진이들에게는해결책을제공하고세입자들에게는아무것도주지않는것은국가의책략중하나이다. 우린아무리좋은의도를가지고있더라도이런식의접근을재생산해서는안된다. 따라서, 모든호소는퇴거에대한중지와빈집들의점거의합법화를지지하거나, 적어도지지하는호소와연대하여야한다.

사회조직들은세입자파업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파업을불러일으키고 지지할수도있고, 피해를줄수도있다. 주거권운동과조직들간의강력하고효과적인관계의특징들은무엇일까?

첫째로, 주거권운동의현실을인식해야한다. 이운동은열악한주거환경에서달리는이들이나집을잃을위기에처한이들모두로이루어져있다. 이들, 불안정한이들은모든것을얻을수도, 잃을수도있다. 이들이처음에세입자파업이나다른저항행동을선포하는주체이다.

세입자파업에있어서조직은가장전략적으로중요한문제이다. 하지만필수적인특정조직이라는것은없다. 1931 년바르셀로나처럼이미매우강력한조직이파업을시작할수도있다. 하지만주민들자체가파업을해야한다면, 이들은그자신들이파업을선언하고자신들의행동을조정하고지원을받기위해필요한조직을만들것이다. 주거권투쟁에특화된조직들이이미존재하더라도거주민들의즉각적필요에응답하지않는다면거주민들은이조직들을무시하고자체조직들을만들것이다. 그리고매우운이없는경우에는한조직이자신을운동의주인인양여기고거주민의필요보다는자신의정치적필요에따라운동을이끌려고할수도있다. 1960 년런던세인트판크라스파업에서일어난것처럼이런경우는파업은사보타주하고세입자들에게피해를주게된다.

대다수의세입자파업이여성에의해조직되었다는사실은이런점을시사한다. 좌파의공식적인조직들은대개이미가장고통받는이들의인간적필요보다는“당파적이해관계”를앞에놓는가부장적논리를따라만들어졌다는것이다. 이런이유로여성들은자주기존의거대조직들에참여하기보다는특히자신들의고유한네트워크와방식으로고유한조직구조를만들어냈다.

주거권운동과사회조직들간의강력하고효과적인관계는다음과같은원칙들에기반한다고할수있다.

1. 사회조직들은거주민들의필요에응답한다. 조직들은전략구상에도울수있지만거주민들의현실과의향에눈을감아서는안된다.
2. 조직들은거주민들을이끄는게아니라돕기위해서존재한다. 만일조직들이자신들이거주민들을이끄는것이필수적이라고여긴다면거주민들은행동이필요할때자체조직을만들어야만할것이다.
3. 조직들이제공할수있는가장중요한구조지원은심리적인구조와방어적인구조지원이다. 전자에관해선, 조직의존재는거주민들이혼자가아니라는것을인식하게, 즉함께이기에자신들은강하고, 이길수있다고인식하게된다. 이런맥락에서중요한것은바로사람들을복돋는것이다. 폄하하거나두려움, 쓸데없는신중함을심는것이아니라. 방어에서의역할에대해서는, 사회적조직은강제집행에대한물리적저항을조장하고재판에대비한법적자원을모을수있다. 이것없이는파업참여자들은집별로스러져갈것이다.

세입자 파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세입자파업은어떤세입자의모임이집단적으로임차료지불을중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모임의세입자들은같은건물주에게속해있거나같은동네사람들이일수도있다. 세입자파업은다른캠페인과함께, 혹은더큰투쟁의일환으로, 아니면반젠트리피케이션투쟁의중심축으로서건디기어려운생계환경, 전반적인가난, 자본주의그자체에반대하는투쟁방법으로서실현되기도한다.

세입자파업이승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3 가지요소가필요하다.

1. **공통의 불만.** 세입자들이공동의요구사항을만들지않은상황이더라도초기에는세입자의대부분이대략적으로비슷한방식으로상황을인식하고있는것이중요하다. 즉, 현재상황이매우분노스럽거나용납할수없고, 주거권을박탈당할위기에처해있고, 기존제도가정의를실현시킬거라고믿지않는인식을가지는것이다.
2. **손 뻗기.** 아래에서보게되겠지만세입자파업의대다수는상대적으로소규모의집단에서시작하고거기서퍼져나간다. 그러므로세입자파업에동참하는이들은동참의메시지를전파하고, 불만사항을이야기하고, 지지와연대를호소할수단이필요하다. 많은경우에한부동산의 1/3 정도의세입자만파업에동참해도승리를얻을수있다. 그렇지만, 충분한커뮤니케이션은이정도의숫자에도달하고파업이널리퍼질거라는위협이실질적으로보이게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
3. **지원.** 파업에참여하는이들에게는지원이필요하다. 법정공방을위한법적지원, 집을잃은이들에대한주거지원, 강제집행에맞서기위한물리적지원, 대규모탄압에맞서기위한전략적지원이필요하다. 많은경우에, 특히대규모파업에서파업에동참하는세입자들은같은동지들에게서서로도우며생존을위해필요한조직들을만들면서그런지원을받거나기존의운동조직들에지원을요청했다. 그러나파업을촉발시키는동력은언제나용기있게첫걸음을내딛은세입자들로부터왔다.

주거권 투쟁에 특화된 조직들

세입자파업에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불안정한 주거 상태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세입자파업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더 이상은 못참아!”라고 말하는 이들의 용기이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입자파업은 일종의 모순이었다. 만약 모두가 용기를 낸다면, 승리는 거의 보장되고 리스크도 매우 낮다. 하지만 모두가 머뭇거리 집단으로서의 안전성이 없다면 용기를 낸 소수는 자신들의 집을 잃을 수 있다. \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민지역의 수백만 명이 같은 상황 아래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 리스크를 떠안는 “소수”란 없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일 자리를 잃었고 이들이 집세를 낼 수 없게 될 것이고, 이 숫자는 늘어나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지만, 중국에는 우리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집단화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모든 것이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이들, 즉 수입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을 버틸 수 있는 이들이나 일 자리를 다시 찾은 이들 또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격리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또 이에 따른 경제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관계없이 스페인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우리 이미 집에서 살 권리를 잃고 있었다. 만약 “정상”이 돌아온다면... 관광은 에어비앤비, 젠트리피케이션, 무한 상승 임대료의 버틸 수 없는 압박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린 다른 이점이 하나 더 있다. 비상 상황에서는 사법부도 마비된다. 일부 도시는 모든 퇴거 조치를 연기했고, 다른 지방들에선 아예 퇴거를 처리할 수 없거나 매우 느리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세입자파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집단화하는 것이다.

역사 속의 파업과 그 속의 공통점들

이제부터역사속의주요세입자파업들에서이세가지필수요소가어떻게실현
되었는지살펴볼것이다.

정서적인 우려

처음에는 단순히 세입자 파업과 연관된 경험의 완전한 부재로 인해의 구심이 싹트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우리가 아는 스페인에서는 1931 년 이후 세입자 파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내가 가진 권리는 뭐고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면 내가 받을 만한 불이익은 뭐지?

요약하자면, 세입자 파업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집세를 그만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건물주한테 미지급 통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통보하는 게 파업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건물주하의 다른 세입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이것도 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란 카나리아 (Gran Canaria) 의 세입자 조합은 건물주에게 보낼 수 있는 양식 예시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알려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각각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에서 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에 파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 협의회나 주거권 혹은 세입자 조합, 아니면 CNT 와 같은 연대에 기반한 노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파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대략 알게 되면 이들이 정보와 자원을 분배하고 강제 집행에 맞서서 집단적 방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함께하면 훨씬 훨씬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법적인 결과에 관해서는,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면 건물주는 당신을 쫓아내기 위한 강제 퇴거 조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같은 건물주하의 복수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면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포함도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과 같은 보편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 퇴거 중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에서는]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와 여기.

아일랜드, 러스커몬 카운티, 디 프레인 영지, 1901 년

1901년 아일랜드 러스커몬 카운티의 대지주인 디프레인 남작하의 농장들에서 세입자 파업이 일어났다. 그 이전 수십년간 세입자들은 (소작인) 영국 식민주의와 아일랜드 대기근의 영향에 대한 저항과 연관된 운동 속에서 대영지주들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력을 길러왔다. 러스커몬 카운티 자체에서 이들 운동이 자리잡진 않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들의 실천에 관해 알고 있었고, 또 소작농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불법적인 저항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대중 집회, 물리적 퇴거 저항, 사보타지, 방화 같은)

20 세기 초, 러스커몬 거주자들은 농업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민족주의 조직인 연합 아일랜드 연맹 (United Irish League, UIL) 아래서 조직되었다. 거주자들이 자율적 파업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파업 지원을 위해 결합했던 다른 그룹들과 함께 빠르게 UIL 지부와 결합했다. 동시에, UIL 의 고위 간부들은 모호하게 행동했다. 언제는 지원을 해주고, 다른 때에는 파업을 소작과 사유 재산의 개념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도로 프레이밍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UIL 지도부는 계속해서 지배 계급의 일부가 자신들의 조직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폭우가 내려서 그해 수확의 대부분이 파고당해 생계비가 올라갔고, 디프레인은 임대료 (소작료) 인하를 거부했으며, 빛은 쌓여만 가고 많은 가족들이 퇴거당했다. 또,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서기나 긴 부정의 역사가 있었고, 이는 최근에 옆 영지의 거주인들은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디프레인의 세입자 (소작인) 들은 농노처럼 생활하도록 강제되었던 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파업은 1901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디프레인의 임차인 (소작인) 들이 UIL 이 그들을 지원하긴 했어도 파업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게 파업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파업은 다른 영지들로까지 퍼져나가 1년 넘게 지속되었다. 디프레인의 영지의 90% 이상의 임차인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무허가 거주지를 지으면서 강제 집행에 저항했다.

이 일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1903년 영국의회는 대대적인 농업 개혁으로 소작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 Daphne Dyer Wolf, "Two Windows: The Tenants of the De Freyne Rent Strike 1901-1903" (박사논문). Drew University, 2019.

실제적, 법적 우려

세입자파업을지지할만한세입자들이몇가지의구점을가지게되는건이해할
만한일이다.

1907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로사리오의 브룸스 파업

1907년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다음년도증세안을가결했다. 그러자마자건물주들은임대료를올리기시작했다. 빈민주거지역의상황은그전에도이미비참했는데도말이다. 그다음해에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연맹 (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 은임대료인하캠페인을시작했다.

9월 13일, 한블록내의 137개아파트에살던여성들이동시다발적인파업을시작했다. 이여성들은퇴거를시도하던변호사, 공무원, 판사, 경찰을모두몰아냈다. 9월말이되자, 100,000명이상의세입자가이파업에동참했다. 이파업은위원회형식으로조직되었으며, FORA의동원및조직구조의도움을받았다. 이들은임대료의 30% 인하를요구했다. 경찰이세입자하나를퇴거시키려고오면, 이들은온갖걸던지고손으로로드잡이하며싸웠다.

이파업은로사리오, 바이아블랑카등다른도시들로퍼져나갔다. 또 FORA를위시로한사회주의및아나키스트, 노동조직들의지지를얻었다. 경찰의탄압은강렬했다. 한젊은아나키스트가경찰에게살해당하는일도있었다. 투쟁의끝에는, 파업에동참한이들이많은퇴거시도를격퇴했지만, 건물주들이임대료를내리도록하지는못했다. 3개월간의격렬한전투와비르히니아볼텐같은많은조직가들의추방끝에주거법하에서투쟁은동력을상실했다.

- La Huelga de las Escobas
- Anarquistas: la huelga de lxs inquilinxs de 1907

세입자들의 우려

보호하지않는것은크게놀랄일이아니다. 한편, 코로나는빛의속도로연대의증상들이퍼져나간때이기도하다. 사람들은발코니에서 caceroladas(cacerola(손잡이달린냄비) 로시끄럽게소리를내는시위형태) 를행했고, 빠르게, 정부가부과한포위상태에도불구하고사회적요구의목소리가퍼져나갔다.

요약하자면지금은세입자파업을위한적기가아니지만, **지금 당장**그런행동을조직해야할필요가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만약지금이때가아니라면-주거불안정성이그어느때보다높고, 전세계적전염병에, 사회적인행동들이빠르게퍼져나가는이때-, 아마도세입자파업을하기위한적합한때라고는결코없지않을까?

1907 년 맨해튼 세입자 파업

1905 년과 1907 년 사이에 뉴욕시의 임대료는 33% 나 올랐다. 항만, 건설업, 공장에서 일하러 찾아오는 이민자들과 함께 뉴욕은 끊임없이 커져갔다. 그와중에 아나키스트 및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도 크게 일어났다. 1907 년 가을, 건물주들은 다시 한번 임대료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 세의 사회주의자이자 자유대인이 주 노동자인 폴린 뉴먼이 총대를 매었다. 400 명의 다른 여성 노동자들을 설득한 끝에 세입자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12 월 말이 되자 수천여 가구가 동참했고, 새해에는 1 만여 가구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 18-20%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몇 주 만에 2 천여 개 가구가 임대료 인하를 이루어냈다. 이 파업은 향후 몇 년간의 지역 투쟁과 결과적인 임대료 국가 통제의 발단이 되었다.

- The New York City Rent Strike, 1907-8

우리가 지금껏 보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입자 파업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필요하다. 즉, 가만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기 불가능하게 하는 불안정성과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간다는 공통된 자각이 필요하다. 현재 이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거대 국제 투자 펀드들은 점점 더 세계 곳곳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기록적인 고(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거 시장을 포식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이 글을 쓸 당시에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인) 2020 년 2 월에 임대료가 1 평방미터 (1/3 평) 당 11.1 유로 (한화 약 14,803 원) 으로 2019 년 2 월로부터 5.6% 인상을 기록하며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최고가의 지역들은 마드리드주 (15 유로), 카탈루냐주 (14.5 유로) 였다. 마드리드 시에서는 3.5% 의 인상을 기록하며 1 평방미터당 16.3 유로,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3.7%, 1 평방미터당 16.8 유로 였다. 그러나 유명 관광 도시 모두는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겪었다. 2014 년에서 2019 년 사이에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50% 상승하여 2008 년 경제 위기 이전 최고점을 훨씬 넘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스페인 평균 임금은 3% 조차도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 집세는 50% 가 오르고 임금은 3% 오른 것이다. 그러나 평균 임금은 노동자들과 백만장자를 포함하고, 후자는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 (즉, 민중 사이에서 가장 흔한 임금 수준) 을 보면 그동안 훨씬 적게 상승하거나 심지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훨씬 이전부터 지난 5 년간 이런 상황이나 타날 징조를 계속 보아왔다.

이 주거권 접근의 부재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 년에는 스페인에서 59,000 건 이상의 강제 퇴거가 있었다. 이중 임대료 체납의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2019 년에는 54,000 건 이상이 있었고, 이중 70% 는 도시 주거 임대법 개정안 (Ley de Arrendamientos Urbanos, LAU, 단기 임대 유통화, 장기 임대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안) 에 기인했다. 두 해 모두 카탈루냐와 안달루시아주가 퇴거 건수 최상위를 차지했다. 2018 년보다 2019 년의 강제 퇴거 건수가 감소한 것은 도처에서 나타난 강제 집행에 대한 저항과,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난 12 년간의 저항의 폭발로 인해 은행들이 좀 더 협상하고자 하여 매년 더 적은 압류가 일어나게 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7 년과 2019 년 사이 마드리드의 집 없는 이들의 수는 25% 가 늘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2583 명,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3000 명 정도가 되었다. 스페인 전체에는 4 만 명이상의 집 없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rimethic 주: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에서의 집 없는 이들의 수만 해도 이 숫자를 넘는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상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의 비상조치가 경찰과 계엄 세력의 힘을 증강시키고, 금융 기관, 사장, 부동산이 있는 이들을 지키면서 가장 불안한 이들, 즉 세입자들, 미등록인들, 집 없는 이들을

현재 상황: 적기 (適期) 이상이다

**바부르 부인의 군대, 1915 년
글래스고**

1915 년이전몇년간, 스코틀랜드글래스고시는전시산업화와이촌향도로인해급격히성장했다. 자산가계급은부동산업에기대를걸고 11% 의집을비워놓은채새로운건축에투자하지않았다. 그와중에도동자계급은더빚비고남아빠져가는집에살아야만했다. 스코틀랜드주거회의 (Scottish Housing Council) 같은단체와다양한노조들은주거와임대법개혁을위해몇년간노력했다. 이들은신법몇개의제정을이뤄냈지만전반적은상황은계속해서나빠졌다. 거기에도가 1차세계대전의발발로인해식료품의물가가한없이올랐고, 대부분의청년은해외로나가있었다. 여기서건물주들은기회를보았다. 남성이없는상태의가난한가구들을착취하는것이더쉬울것이라고생각했다. 1913 년 8 월부터 9 월까지, 글래스고에서는 484 번의퇴거가일어났고, 1915 년 1 월부터 3 월까지에는 6441 번이나일어났다.

노동계급을고통스럽게하던비참과착취, 대학살속에서글래스고건물주들은좋은기회를엿보았다. 1915 년 2 월, 이들은모든임대에관해 25% 인상을발표했다. 즉각적으로 2 월 16 일, 고반지역의남부에서는모든빈민여성들은대중집회를가졌다. 집회에는 1914 년결성되었으나아직인지도가적었던글래스고여성주거연합 (Glasgow Women's Housing Association, GWhA) 이참석했다. 집회에서여성들은 GWhA 에소속된남 (南) 고반여성주거연합 (South Govan Women's Housing Association) 을결성했다. 이들은기존임대료는지불하되인상분의미지불을결의했고, 이는지역에서빠르게퍼져나갔다.

GWhA 는 5 월 1 일집회를주최하여 2 만명이상의참가자를끌어모았다. 6 월에는고반여성들이임대료인상취소를이끌어냈다. 운동은거기서시작되었다. 글래스고전체에서 3 만명이상의사람들이세입자파업에참여했다. 이들은고반지역의노동자였던메리바부르 (Mary Barbour) 의이름을따바부르부인의군대라고알려졌다. 파업을퍼뜨리고대오를유지하는과정에서이들은집회와시위를조직하고경찰과직접싸우며퇴거로부터세입자들을보호했다. 노조들은군수공장에서파업을하겠다고위협했다. 1915 년말, 이들은파업에동참한이들에대한모든징벌적조치의중단과전쟁이전임대료를유지하는임대료동결, 영국최초의임대료제한법 (얼마가지않아도입되게되는공공주택으로의중요한한발자국) 을이뤘다.

이운동은일찍부터주거문제에집중하던사회주의당연관조직스코틀랜드주거연합연맹 (Scottish Federation of Housing Associations) 같은여타조직과좌파조직들의지지를이끌어냈다. 그러나여성들이기존조직에참가하기보다는자율적인조직들을만들어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GWhA 의초대회장인메리번스레이드 (Mary Burns Laird) 같은이들은정당들과함께 (레이드의경우에는노동당과) 조직하기도했지만바부르부인같은다른이들은어떤정당에도소속되지않은채투쟁을위한자기자신들의길을갔다. 어쨌든, GWhA 의활동은전통적인좌파정치와는거리가있었다. 이들의집회나회의는그들의주방, 빨

이파업들의대부분은여성들이시작했다. 여성들은위에언급된모든사례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파업은항상많은세입자들이비슷한조건에처하게됐을때일어났다. 임대료가임금의큰부분을차지하고, 집을잃을위기에처하고, 매우건강에해로운환경이나러스커몬파업에서의영국식민주의같은맥락적문제, 일부에게혜택을주고나머지에게불이익을주는불공정한개악등의추가적으로분노를불러일으키는원인이있었다. 그리고거의항상처음불꽃이튀는순간이있었다. 가장흔한것은임대료인상이나세입자들의경제적상황악화였다.

파업은자주자발적, 동시다발적으로일어났다. 하지만파업은무 (無) 에서생성되지않았다. 파업은자치회의또는지역네트워크에서형성된주민들의구체적인의지에서 (공정적인맥락에서) 표출되어나온것이다. 거기서부터파업참여자들은자체조직을만들거나기존조직들의지원을끌고왔다. 그외의경우에서는어떤공식적조직이파업의시초부터존재했다. 그렇지만이조직은거대노총이나정당이아니라세입자자신들이자신들을위해만든보다소규모의조직이었다. 우린세입자파업이대규모조직에의해개시된사례는단한개, 1931 년바르셀로나밖에찾지못했다.

승리가가능성을고려했을때, 파업이가능한한널리퍼지는것이중요하다. 다만다수가참여하고있을때는필수적이지는않다. 같은건물주아래의세입자중 1/4, 1/3 만참여했을때도파업에서승리할수있었다. 특정건물주가타겟이아닌, 일정지역에서일어난파업들의경우에는, 도시전체의거주민의터무니없이작은부분만을차지하더라도정상성을위협하고, 정부안에위기를촉발시키고, 사법시스템에과부하가걸리게할수있다. 개인적해결책을찾기보다는높은사기와연대를유지하려는의지가파업참여자의수보다더중요하다.

또다른요건, 가장중요할수도있는이요건은맥락에따라좌지우지된다. 국가가어느정도까지탄압할수있는능력이있는가? 국가에게있어서불복종을분쇄하는것이, 아니면갈등을중재하고자신들의이미지를회복하는것이더중요한가?

래방, 거리에서 일어났다. 대부분의 경우, 온갖 약어 뒤에 있던 힘은 바로 가난한 여성들이 평소 쌓아두었던 연대의 네트워크였다.

- **1915: The Glasgow Rent Strike**

-

Brenda Grant, “**A Woman’s Fight: The Glasgow Rent Strike 1915**,” 2018

공통적인 특성

1931 년 바르셀로나 경제 보호 위원회 (Comité de Defensa Económica)

2017 년에 토론토 파크데일에 위치한 같은 건물 주하의 여러 빌딩에 분산된 300 채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성공적인 세입자 파업을 이뤄냈다. 파크데일에서는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연관된 부동산 회사는 열악한 아파트 환경과 임대료 인상을 통한 강제 추방 시도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악명을 얻었다.

부동산 회사가 임대료를 올리려고 시도하자 일부 주민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그러자 다른 주민들도 빠르게 동참하여 자치회의 형식으로 자신들을 조직했다. 여기에 또 다른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2015 년 지역 투쟁에서 만들어진 같은 지역의 조직 “몽처라 파크데일 (Parkdale Organize)”의 활동이었다. 몽처라 파크데일은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건물들을 돌아다니고, 자원을 제공하고, 저항 모델을 공유하면서 파업 조직을 도왔다. 3 개월 후, 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저지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에 영감을 받아 그 다음 해에 파크데일의 189 채짜리 다른 아파트 건물에서 세입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부동산 회사가 임대료의 대대적인 인상을 발표하자, 55 채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2 개월 만에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고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취하지 않았다.

- **Parkdale Tenants Stage Rent Strike to Protest Unfair Rent Hike**

-
Parkdale Tenant Strike Expected to End after Landlord Backs Down on Rent Increase

2017-8 년 토론토 파크데일

1931 년바르셀로나는독재로부터해방되지얼마안된상태였다. 사람들은민주주의가 가져올 개선들을 간절히 기다렸고... 계속 기다렸다. 바르셀로나는 임대료가 임금의 30-40% 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었다. (오늘날 수치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쁘지만 당시 유럽 도시에서의 평균은 15% 정도였다.) 삶의 조건은 최악이었다.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은 공장 교대 시간 사이에 살 수 있는 방인 “자기 위한 집들 (Casas de Dormir)”로 갔다. 이 방들은 침대조차 없었다. 단지 노동자들이 팔을 쉴 수 있는 밭줄밖에 없었다.

1931 년 4 월 임대료의 40% 인하를 요구하며 세입자 파업이 터져 나왔다. 이 파업은 12 월까지 4 만 5 천명에서 10 만명 사이의 사람들이 도시 전체에서 참여하며 이어졌다. 경제보호위원회 (CDE) 는 CNT (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 전국노동연맹) 의 건설노조의 해설립되어 파업의 조정과 확산에 중추를 담당했다.

여타 수많은 세입자 파업과 같이 이 세입자 파업도 같이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퇴거에 저항하는 등 파업하고 있는 이웃간의 연대가 두드러졌다. 이들이 투쟁에 성공하면, 거리에서 축하했다. 성공하지 못하면, 퇴거당한 집을 뜯고 들어가 거기서 축하했다. 아침에 수도와 전기를 끊은 그 노동자들이 저녁에 돌아와 다시 연결했다. 이들은 물론 CNT 소속이었다. 가끔은 경찰은 [이미 쫓아냈다가] 재점거된 집들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쳐서 가구를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부수기도 했다. 다른 전술 중에는 오늘날 “escrache”라고 알려진, 건물주의 집 앞에서 시위하는 전술도 있었다.

물론 이 파업은 무 (無) 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자치 전통과 이웃사이에, 지인사이에 생겨난 다층 다양한 관계와 인연의 네트워크에 기반해 있었다. 또한 1 차 세계 대전부터 CNT 가 길러온 레디컬 문화에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CDE 의 조직가 산티아고 빌바오는 이 세입자 파업을 경제적 상호부조의 주요한 실천이었고, 이를 통해서 가지지 못한자들이 시장의 힘에 저항하고자 신들의 일상의 주도권을 쥔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CDE 가 노동자들에게 한 조언은 이것이었다. “잘 먹고 돈이 없다면 월세를 그냥 내지 마시오!” CDE 는 또한 실직자는 임대료 지불에서 면제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 파업이 CDE 가 조직한 대중 집회를 통해서 퍼져나갔긴 했어도 실질적인 운동은 거리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그 어떤 조직보다 훨씬 필수적인 것이었다.”

- Barcelona (1931), Huelga de Inquilinos

“세입자 파업은 바르셀로나 타구역에서 시작되었다. 바르셀로나 타구역에는 어부들의 고된 삶과 마키니스타 테레스 트레이 마리티마 (육해상 기계사 (社), Maquinista Terrestre y Marítima, 당시 금속 산업의 거두 중 하나) 노동자들로 부터 형성된 사회적인식이 존재했다. 여기서 [주거에 대한] 불만이 우려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지중해안에 위치한 전통적인 어업 구역에 선어부들의 집들이 성냥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5-7 평 남짓한 방에 가족 전체가, 가끔은 주변 마을에서 최근에도 착한 친척들 같은 식객과 같이 살았다. [...] CNT의 유일한 건설노조 (Sindicato Único de la Construcción) 가 조금씩 조금씩 도시와 각 구역의 주변부로 퍼져나간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조직했고, 각 구역의 파업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 투쟁의 방식을 가졌다.

-Aisa Pàmpol, Manel, (2014) “La huelga de alquileres y el comité de defensa económica,” Barcelona, abril-diciembre de 1931. Sindicato de la Construcción de la CNT. Barcelona: El Lokal.

파업은 카탈루냐 주지사 오리올 앙게라 데 소호와 1934년 10월 봉기 진압에 도주 역할을 한 건물주 연합 회장 조안 피치이손의 지휘하의 격렬한 탄압으로 효과적으로 진압됐다. 새로운 민주 공화국은 제 무기를 다 가져와 보니 예전 독재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경찰, 구아르디아 시빌 (시민보호대-기동경찰), 새로이 신설된 준군사 경찰 구아르디아 데 살토 (공격대-경찰특공대) 까지 모두 동원했다. 공화국 수호법이 발동되어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했다. 파업 참여자들 일부는 “연방 정부 죄수”로 감옥에 갇혔고, CDE는 범죄 조직으로 선포되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어 곧 오게 될 혁명을 향한 잉겔불을 때렸다.

세입자 파업에 대한 1차 문헌 자료의 대부분은 스페인 내전에서 아마도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저항의 한 예시에 대한 공포로 파괴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역사 편찬과정에서는 비록 이번 파업에는 CNT의 중심으로서의 중요성을 의심할 수 없지만 공식적인 조직들이 비공식적 조직 공간보다 언제나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구역에서 파업 전술이 달랐다는 것은 파업이 중앙 통제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실제로 행동한 이들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Barcelona (1931), Huelga de Inquilinos

-

Aisa Pàmpol, Manel, (2014) “La huelga de alquileres y el comité de defensa económica,” Barcelona, abril-diciembre de 1931. Sindicato de la Construcción de la CNT. Barcelona: El Lokal.

로스엔젤레스 래팅스 지역 벌링턴 대로와 같은 건물주 하 3개 건물에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집을 앓고 거리에나 앉은 래팅스 사람들의 숫자가 급등했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25-50% 인상하자 192채 중 36채의 아파트에서 파업이 선언되었다. 건물들의 열악한 상태 또한 세입자들이 공유하던 불만 사항이었다. 파업 2주차에 돌입하자 총 85채, 거의 절반이 파업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파업 선언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을 조직해 나갔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 LATU와 인근 지역의 퇴거에 반대하는 법적 보호 활동가 조직이 파업 참여자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했다.

사법부는 각 아파트 건물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항을 찢어 놓았다. 아파트의 절반은 승소했고, 나머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 The Biggest Rent Strike in LA History: Burlington Tenants vs. Slumlord Attorney Lisa Ehrlich

**2018 년 로스 엔젤레스, 단결
된 벌링턴**

**1959-60 년, 런던 세인트 판크
라스**

런던의세인트판크라스는약 8000 천명가량이공공주택에서거주하던노동 계급이주로살던지역이었다.

1958 년 [세인트판크라스가속한캠든] 자치구의회는공공주택의임대료인 상안을결의했다. 그해 7 월말보수당이구의회선거에서승리한후구의회는다시 금임대료를인상했다. 이번에는 100%-200% 사이의엄청난규모의인상이었고, 거기에더해 (이전에는자치구에있는노동자들이의무적으로가입해야했던) 노조들을쫓아냈다.

그때까지는지역풀뿌리단위조직이별로없었다. 하지만 8 월이시작되면서 한지역의세입자들이협회를조직했다. 8 월말이되자캠든에는위와같은세입 자협회가 25 개가조직되고, 새로이창설된세입자협회연합 (United Tenants Association, UTA) 중앙위원회에대표자를보냈다. UTA 위원장돈쿡 (Don Cook) 은 1959 년이전에있었던소수 (그리고소규모의) 세입자협의회의중하나 의위원장이었기도했다.

초기부터이조직의기층은직접행동과세입자파업을적극지지했다. 그러나세 입자의요구들을보수당을이기고캠든구를다시장악하는데써먹고자했던노동당 이이들을저지했다.

1959 년 9 월 1 일, 4000 여명의사람이행진과집회를열었다. 여기서참가 자들은각가정의새임대료를책정하기위해요구받은제출서류작성거부, 단결호 소, 퇴거를눈앞에둔어가정이라도지키겠다는약속, 노조들을향한연대요청등 을포함한사항들을의결했다. 그후몇달간세입자들은시위를계속했고, 노조의지 원과함께각블록마다위원회를설립했다. 각위원회는대변인을뽑아 200 명혹은 그이상의규모로주마다대변인회의를열었다. 포이회의에서는 3 주마다회보를 발행해상부에서기층까지정보를제공했다. 연말이되자 UTA 에는 35 개세입자 협회가가입되어있었다.

여성들은구의원들의집앞에서야간시위를조직하였다. 구의원각각은주에두 번이상야간시위의대상이되었다. 구의원들의수면시간은확줄었다. 한참가자 (Dave Burn) 가파업에관해서쓴이야기중하나에는여성들이“운동의척추가되 었다. 여성들은매일적극적으로참여하고서로를지탱해줬다.”고진술한다. 그렇 지만번의이야기대부분은남성이압도적으로다수를차지한공식적대표조직들에 주목하고있다. 급등한임대료는 1960 년 1 월 4 일부터효력을발휘하기로예정 되어있었다. 초기에는공공주택세입자들중 80% 는인상분을내지않고기존분 만지불했다. 수많은협박이이루어지고자치구의퇴거조치가시작되자파업참여 율은전체세입자의 1/4 정도로, 즉 2000 명정도로하락했다. 2 월달에는노동당 이보수당과협상할수있게 UTA 에게파업을중지해달라고요청했다. UTA 는거 절했다. 파업이없는세입자들은완전히국가폭력에그대로노출되고일부가정 은이미퇴거조치가진행되고있었기때문이다.

UTA 는역량을집중하기위해서한번에너무많은강제집행에맞서싸우지않도 록체납임대료대부분의집단적지불을조직했다. 첫재판들이시작되었고 3 번의

인종차별주의적젠트리피케이션시도의 일환으로, 한건물주가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지역의마리아치광장옆에있는아파트몇채의임대료를 60-80% 인상 했다. 세입자의절반이 (임대료인상에직접영향받지않은세입자들도포함해서) 즉각적으로연합을형성했다. 그리고건물주와의대화를요구했다. 건물주가이들 에각각개별적으로대응하려고하자연합은세입자파업을시작했다. 그러자로스 앤젤레스세입자조합 (Los Angeles Tenants Union, LATU) 가파업을지지하 며조직과법적자원확보를도왔다.

9 개월이지나자세입자들은 14% 의임대료인상조건, 3 년계약 (미국에선 매우드물다), 미납금액에대한어떠한불이익면제, 3 년후차기계약집단교섭권 을얻어냈다.

- Boyle Heights Tenants, Mariachis Celebrate Victory over Exorbitant Rent Hikes

2017 년 로스 앤젤레스 보일 하이츠 마리아치

강제집행이 8 월말에예정되어있었다. 세입자들은수비를조직하기시작했다. 공공주택에서의단하나의퇴거도허용하지않을참이었다. 이과정이란창이던 7 월, UTA 지도부는구의원들을만났다. 하지만보수당의원들은세입자들의문제에관해서아무것도듣고싶지않아했기때문에협상은실패했다. 그순간이후로 UTA 는 세입자총파업에돌입했다. 8 월중순이되자, 250 개이상의강제집행고지가날아들었다.

8 월 28 일이되자거대한바리케이드들이세워졌다. 세입자들은동네전체에알릴수있는피켓과경보시스템을구축해노동자들이나와사람들의집들을지키러올수있도록했다. 8 월 14 일에는강제집행고지가 514 개로늘었다. 노동당과공산당은커지는긴장상태에두려움을느껴파업중지를호소했지만, 때는이미너무늦었다.

9 월 22 일, 800 명의경찰이돌입했다. 2 시간의격전끝에경찰관하나가중상을입고블록하나의두집의강제집행을완료했다. 충돌은정오까지계속되었다. 300 명가량의지역노동자들이파업사수를돕기위해달려왔다. 하지만노조들은지원을보내지않았다. 오후에는 14,000 명가량의세입자들의행진을 1000 여명의경찰이공격했다. 대치는계속됐다.

구의회의장이 UTA 대표단을만날준비가되었다고선언했다. 그다음날, 내무부장관은모든시위및집회금지를선포했다.

붕기가일으킨정치적논란으로인해, 노동당은세입자들을버리고이들을“선동가”“좌경맹동주의자”라고 폄하했다. 또노동당은외부세력개입설을주장했고대화를통해이사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지난 1 년간보수당구의원들은거의항상대화를거절해왔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말이다. 그와중에, 협상결과로보수당은소규모의임대료인하를승인했다.

좌우의공격과나날이새로운퇴거협박을받자 UTA 는더이상의퇴거를피하기위해전략수정을결의했다. UTA 는가장큰퇴거위험을안고있는이들의체납된임대료를지불하고, 다음선거에서보수당을몰아내기위해노동당을돕기로결정했다. 1961 년 5 월, 노동당은구의원의석을 51 대 19 로장악했다. UTA 대표자중몇몇이임대료개혁을선거발판으로노동당구의원들사이에껴있었다.

세입자들은공공주택임대료개혁을기다리고기다리고또기다렸다. 저번에퇴거당한두세입자들은새주거지를찾았지만노동당구의원들은임대료개혁이불가능하다고선언했다. 파업은실패했다.

- Rent Strike: St. Pancras, 1960

1970년대 이탈리아 자체인하 (Autoriduzione) 운동

부터배제당했을때도여성들은핵심인주민간네트워크의조직및유지의주역이었다.

- **Rent Strike Gives Blacks in South Africa a Powerful Weapon**
- **South Africa Blacks Plan Mass Action: Store Boycotts, Rent Strikes Are Part of Strategy**
- **The People Armed, 1984-1990**

-
Soweto City Council Drops Campaign To Crush Rent Boycott

소웨토는 높은 인구 밀도를 지닌 요하네스버그의 도심 지역이다. 1980 년대에는 그곳에 약 250 만명이 거주했다. 아파트헤이트 정권 말기, 소웨토 주민들은 사회적 배제와 극도의 빈곤을 겪었다. 그로 인해 1976 년, 일련의 격렬한 시위와 파업, 수십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경찰과의 충돌, 즉 소웨토 봉기가 촉발되었다. 지역의 물질적 조건은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그건 오로지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투쟁 덕분이었다.

주거 환경은 끔찍했다. 집들은 열악했고, 비위생적이었으며 난장판이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치솟는 실업률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주민들의 평균 임금의 1/3 에 달했다. 1986 년 6 월 1 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수천 명의 소웨토 거주민들이 소웨토 지역의 회로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을 중단했다. 지역의회는 세입자 파업을 강제 집행으로 분쇄하려 시도했다. 8 월 말, 경찰은 강제 퇴거 명령에 불응한 군중에서 격하여 20 명이상을 살상했다. 이를 규탄하는 분노가 열되었고, 당국은 강제 집행을 중단했다.

1988 년 초, 관계당국은 전국적인 흑인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당국이 진압하지 못했던 유일한 주요 거점은 소웨토 세입자 파업이었다. 그해 중순, 파업은 계속되었고, 관계당국은 압박 수단으로 거의 지역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였다.

언론은 파업이 젊은 급진파들의 폭력으로만 지속되므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을 거의 멈추었던 30 개월간의 비상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파업을 지지했다. 중국에는 관계당국은 자신들이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1989 년 12 월, 당국은 모든 체납 임대료를 탕감 (1 억 달러 이상의 손실) 하였다. 또한 강제 집행을 완전히 멈추었고, 거주민들과의 협상 기간 중 모든 임대료 수취를 중단하였으며, 적어도 5 만개의 가구에 직접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이들 세입자 파업이 전에도 반아파트헤이트 운동 세력은 백인 정부에 반대하는 전술로 세입자 파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세입자 파업에 익숙했다.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에서 일어난 조직화와 조직들은 연대의 실천을 크게 확장했다. 하지만 첫 주요 세입자 파업은 레코아 (Lekoa) 에서 1984 년 9 월 주민들 자신의 임대료 인상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일어났다. 이 파업에 가장 결합되어 있던 조직은 바알 시민 연맹 (Vaal Civic Association) (바알은 지명이다) 이었다. 이 파업이 아마도 아프리카 전국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와 여타 조직이 쓰기 시작한 세입자 파업 전술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다.

비슷하게 소웨토 세입자 파업도 당면한 상황과 생존의 압박에 대한 주민들 자신의 대응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소웨토 세입자 파업은 비공식적인 주민간의 네트워크가 파업 조직에 핵심이 되고, 공식적인 조직들은 파업 개시 이후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리고 소웨토 세입자 파업 참가자들이 몇 공식 조직들로

이탈리아의 1960-70 년대는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던 시기이자 사람들이 착취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를 감히 좇고자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1974 년, 공산당의 중립성을 믿고 산업 및 경제 분야의 가장 “진보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은 카를리 계획 (Il Piano di Carli) 이라는 것을 세웠다. 카를리 계획은 노동 착취 증가와 공공 지출 감소를 목표로 했다.

1960 년대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강력한 노동자 주권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한, 자율적으로 조직된 지역 위원회에 기반한 지역 자치 운동의 출현에 영향을 줬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생존에 집중하여 이들 위원회들은 “자가인하”를 조직했다. “자가인하”란 세입자와 지역 주민 자신들이 각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세나 전기세의 절반만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낸다는 것이다.

토리노에서는 1974 년 여름에 이 운동이 꽤나 큰 모멘텀을 얻었다. 대중 교통 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즉각적으로 토리노 시민들은 반응을 보였다. 자가인하 운동의 참가자들은 여러 지점에서 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막고, 팜플렛을 뿌리고, 시당국에 대표들을 보냈다. 거기서부터, 가장 전투적인 노조들이 민중적인 (popolare; popular) 대응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중 교통 이용권을 인색하여 자원자들이 버스에서 이전 요금을 받고 나눠주는 방식의 행동을 취했다. 집단적인 힘으로 이들은 업체들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전기세에 대한 자가인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자가인하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공장과 지역에서 자가인하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모으고, 그 다음으로 우체국 바깥에서 공공 운수 노조들이 유출한 요금 통지서 배달 시각 및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피켓라인을 형성했다. 이들은 자가인하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은 책자들을 나눠줬다. 몇 주 만에 토리노와 피에몬테주에서 약 15 만 가구가 참여했다.

자가인하 운동은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직접 행동도 막았던 공산당이 지배하는 노조 전국 위원회들로부터 지역 위원회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토리노에서 세가 더 컸다. 그래서 토리노에서는 노조들이 자발적인 행동과 지역 (quartiere; neighborhood) 위원회들에서 취한 행동에 힘을 보태고 지원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밀라노에서는 노조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지 않았고, 나폴리와 같은 곳에서는 애초에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팔레르모 같은 도시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자가인하를 가능케 했다.

이 자가인하 운동은 가구 소득 10% 미만 임대료 유지 목표로 임대료가 자가인하로까지 확장되었다. 작은 집단 행동에서부터 더 급진적인 노조들이 지원하는 지역 위원회의 행동까지 다양한 전술들이 적용되었다. 1970 년대 전반, 운동 참가자들은 2 만채의 집을 임대라는 상업적 논리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키며 점거했다. 로마, 밀라노, 토리노에서도 세입자 파업이 있었다.

자가인하운동에서페미니즘운동은주요한일부였다. 여성들은이런맥락에서 자본가-가부장-국가의삼중착취와재생산노동이론을만들어냈고, 오늘날의투쟁에도이이론들은핵심이론으로서남아있다.

- Autoreduction movements in Turin, 1974

-

Mapping the Terrain of Struggle: Autonomous Movements in 1970s Italy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 흑인 거주구